

# 여야 국조·사정 정국 극한 대치...얼어붙은 예산국회

### 국회 예산소위 감액 심사 돌입 민주당 '윤석열표 예산' 칼질 예고 상임위 6곳 예비심사도 못 끝내 12월 2일 처리 시한 넘길 가능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감액 심사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결도 본격화하고 있다.

639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두고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윤석열표 예산'에 대한 대폭 칼질에 나섰고,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맞서는 형국이다. 최종 예산안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특위 예산소위는 지난 17~18일 이틀간 과학방송통신·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보건복지·국방·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 등 7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감액 심사를 벌였으나 정점 예산 상당수가 보류됐다.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관련 예산 및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예산, 대통령실 이전을 위한 청와대 개방 관련 사업 예산 등에 야당은 전액 또는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예산소위는 오는 22일로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고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돌입

해야 하지만, 감액 심사 초반부터 여야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실제 심사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또 예산소위가 감액 심사에 착수하지 않은 10곳의 상임위 중 6곳은 상임위 예비심사도 끝내지 못한 상태이고, 여기에는 운영위·국토위 등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의 '뇌관'인 상임위가 포함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예산을 심사하는 운영위 예결소위는 '경호처 시행령'을 둘러싼 여야 공방 속에 파행을 빚으면서 특수활동비나 대통령실 이전관리 예산 등 정점 예산안이 무더기로 보류된 상태.

국토교통위 예결소위에서는 민주당이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30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파행했다. 교육위 예결소위에서는 정부의 '고등교육 특별회계'에 민주당이 반발하며 파행했다.

정무위는 여야가 예결소위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기획재정위(21일), 정보위(23일) 예결소위는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공공 일자리나 국가정보원 예산을 둘러싸고 이견이 커 여야 간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예산 편성에 영향을 주는 '예산부수법안'을 둘러싸고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기재위 소관 세제개편안이 최대 뇌관이다. 여야가 지난주 가까스로 조세소위 구성 및 심사 일정에 합의했지만, 법안세 인화·종합부동산세 완화·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정부 방침을 놓고 여야 입장이

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정부 측의 금부세 도입 2년 유예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증권거래세는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는 조건을 제시했으나 정부·여당은 이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다만 여야 모두가 '유예'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보인 만큼, 추후 협의 과정에서 입장차를 좁혀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이재명표' 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7050억원) 증액 등에도 결국 정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중국적으로는 예결위에서 여야 타협점이 마련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두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보니, 자칫 예산안 처리가 발목이 잡히면 12월 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도 점점 고개를 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달 9일까지만 예산안이 처리돼도 다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시점으로 못 박은 24일 본회의가 다가오면서 여야 간 파열음은 더 커질 걸로 보여 예산심의 향배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인 가운데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한 민주당 등 야(野) 3당은 야당 특위 위원 11명을 확정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20일 서울중앙지검 모습.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상대로 범죄 사실과 이 대표의 연관성 규명에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 대통령실 1층 로비에 가림막...도어스테핑 중단?

### MBC기자·비서관 설전 이후 설치 대통령실 "경호·보안상 필요"

휴일인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1층 현관 안쪽에 나무 합판으로 만든 가림막이 들어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기자들과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하던 곳으로, 1층 기자실 출입문에서 불과 20여m 떨어진 지점이었다.

지난 18일 도어스테핑 직후 MBC 기자와 윤 대통령 참모 간의 공개 충돌을 계기로 가림막을 세워 정례적인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하려는 것이거나

는 관측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부인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림막'을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1층 공간이 기자 여러분에게 완전히 오픈돼 있다"며 "모든 상황이 노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림막이 이날 완공되면, 기자들이 머무는 대통령실 청사 안쪽에서는 현관으로 누가 드나드는지 직접 확인하고 소통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외교적으로나 여러 분야에서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가림막

머로 일부 일정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그는 "경호상 보안 이유가 존재한다"며 "어느 한쪽에서 밀막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보안상 필요성에 의해 설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핵심 관계자는 MBC 기자가 윤 대통령에게 공세적인 질문을 던진 뒤 대통령실 참모와 설전을 벌인 데 대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대통령실은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 일과 가림막 설치의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도어스테핑 중단 여부 등)은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고 유보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 지지율 29%...다시 20%대 하락

### 한국갤럽 조사...부정평가 61%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다시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9%, 부정평가는 61%로 각각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8~10일)보다 1%포인트(p) 하락(30%→29%)하고, 부정 평가도 1%p 하락(62%→61%)했다.

특히 긍정 평가는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 1~3일 조사와 같은 수치(29%)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전반적으로 잘못한다'·'경험과 자질 부족, 무능함'(이상 9%), '경제와 민생을 살피지 않음'·'이태원 참사 대처 미흡'(이상

8%), '언론탄압·MBC 기자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공정하지 않음'·'통합과 협치 부족'(이상 3%) 등이 꼽혔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12%),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국방 안보'(이상 9%), '공정·정의·원칙'·'주관·소신'(이상 5%) 등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0%)·유선(1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9.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 다시 불 붙은 국힘 당권경쟁

### 비대위 조직 정비 연내 마무리 당권주자들 표심 잡기 잔결음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당권 경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정진석 비대위의 조직강화 특위(조강특위)를 통한 조직 정비 일정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진석은 24일(다음달 9일)가 가까워져 오면서 당권 주자들도 보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당내에선 비대위의 6개월 임기 종료 시점인 내년 3월 13일 전후로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열릴 것이라 관측이 적지 않다.

다만 전대 시기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게 비대위의 공식 입장이다. 전대 시기를 둘러싼 당내 설왕설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전고지 기간만 두 달이 걸리는 당무감사도 착수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이태원 참사 이후 잠시 주춤했던 당심(黨心) 표방같이 속도도를 내고 있다.

일찌감치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기현 의원은 최근 부산·경주 등에서 당원들을 만나며 영남권 당심을 파고들었다.

중단했던 공무모임 '새로운 미래 혁신 24'(새

미래)도 재개한다.

오는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외교부 기후환경 대사를 맡은 나경원 전 의원이 초창 연사로 나서 '인구와 기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특히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나 전 의원이 '당권 경쟁자'라 할 김 의원의 공무모임을 찾아 당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당심 지지층이 일부 겹치는 김 의원과 나 전 의원이 당권 무대에서 연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안철수 의원의 당심잡기 잔결음에 나섰다.

안 의원은 전날 인천지역 당원 간담회에 연이어 참석한 데 이어, 종편 시사 프로그램패널로 출연하는 '고공 플레이'를 펼쳤다.

지난 17일엔 고양 시민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시대정신과 국정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안 의원은 당내 의원들과 '맨투맨' 만남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첫 원내대표를 지냈던 권성동 의원이 청년 모임 강연 등을 통해 물밑 움직임에 나섰다. 권 의원은 아직 전대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전대 시기와 후보 윤곽 등을 지켜본 뒤 '진윤'(진윤석열) 후보로 나설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062)531-3530, H. 010-9229-3530

## 봄에 떠나는 그라운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